

발제(전재성)

8장. 송의 대외정책 1217-1234

1209년 몽골의 서하 침략

1211년 몽골의 금 침략 이후 송나라 대외정책의 딜레마 심화

1234년 몽골이 북송 지역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1279년 중국이 완전히 종속됨으로써 종결됨.

1217-1234까지는 송의 옵션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오로지 방어위주의 전략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음.

몽골의 진 침략 소식이 남송의 적극적 대책을 불러오지 못한 이유

: 1206-1208년 남송의 진 공격이 처절히 실패했기 때문

: 이전 요나라에 굴복할 당시 진과의 동맹이 결국 남송에게 좌절을 안겨준 역사

: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진과 연맹하는 것은 결국 많은 반대에 부딪힘.

당시의 선택지

: 수성의 전략. 양자강 요새 이론. 별다른 공격 없이 방어위주의 전략

: vs. 실지 회복 전략. 군비증강과 군대 양성을 통해 진이 차지하는 지역을 공격하는 전략

결국 진나라에 대한 조공을 중지하여 경제적 타격을 주는 소극적 전략으로 일관하게 됨.

1217년 몽골의 진 침략이 성공하지 못하자 소강상태 지속

남송은 진과의 새로운 싸움에 들어가지만 진퇴를 거듭함.

1217년부터 전투가 시작되어 남송은 진에 다시 조공을 개시

그러나 진 역시 소진되어 일부 북쪽 지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남송은 진에 대한 전략을 두고 여전히 의견 대립. 1220년까지 진의 지속된 공격. 1219년 남송이 진에 대해 중요한 성공을 거두고 진은 현상유지 정책으로. 북쪽에서 몽골을 막으면서 남쪽에서 영향력을 팽창하고자 하는 전략.

1223년 무갈리(木華黎) 사망 이후 몽골의 공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남송은 진과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현상유지. 그러나 양자강 이북의 한쪽에 대한 책임

은 완전히 방기한 정책.

1217-1231까지 북쪽 지방에서 진에 대항하는 한족 반란군이 있었지만, 남송은 누구를 어떻게 지지할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됨. 남송은 최대한의 통제력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최소한의 책임만 지는 안이한 전략을 추구. 반란세력은 송에 심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요나 금과 더 친분. 남송 역시 전비 물자 부족 등으로 작위를 주는데 그침.

1219년 반란군의 한 수장이었던 Li Chuan이 성공을 거두자 일시적으로 고양되어 남송과의 연결이 시도됨. 그러나 반란군 내부에도 의견차이가 있어 결국 남송과의 연대는 한계에 부딪힘.

이후 1226년 봄. 몽골의 북 중국 침략이 재개되고 반란군은 몽골에 패배. 이후 대부분의 군대는 몽골에 투항. 남은 병력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남송과의 연계는 사실상 무산됨.

몽골의 침략. 1221-1234

남송과 몽골 간의 공식 접촉은 1221년 전에는 기록이 없음. 몽골이 남송에 접근하여 진에 공동대항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있지만 기록은 없음.

남송과의 동맹에 몽골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

남송은 몽골을 다른 “야만”으로만 여기고 적극적 동맹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북쪽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

1227년 징기스칸의 사망, 이후 1229년 Ogodei 어거테이카간이 새롭게 선출. 이후 몽골은 진 침략을 위해 사신을 보냈지만 남송이 살해. 이후 관계 악화. 1223-1231년이 협상기. 별다른 성과없이 지나다가 1233년에 이르러 남송-몽골 간의 잠정 동맹 형성.

남송은 진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몽골을 과소평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실지 회복의 의도를 강화하게 됨.

이후 몽골-남송 연합군은 진의 멸망에 성공. 1234년 남송은 승리 이후 몽골에 대항하여 북중국 수복 군사작전 개시. 하남성을 중심으로 한 영토를 회복하려는 의도였으나 참패. 몽골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남송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 평가 등 다양한 실패 요인이 존재.

결국 남송은 북쪽 수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결여한 채 송을 보존할 수 있는 황금기회를 상실한 것.

12장. 중국-만주-한반도의 3각 관계와 양과 음의 시대

양의 시대: 북쪽 중국인 중심, 북쪽으로 팽창

음의 시대: 남쪽 중국인 중심, 남쪽으로 팽창

양의 시대 I. 221 BC - 220 AD

: 진 한 시대

: 중국의 자연적 경계에 맞게 영토 팽창

: 흉노가 주요 적대 세력이며, 한사군 설치. 대부분은 군사적 관계. 일본과 간헐적 외교관계 정도

음의 시대 I. 220-580

: 위진 남북조. 5호 16국 시대

: 한반도는 삼국 시대. 만주지역에도 독립적인 여진족

: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이 거의 존재하지 못했던 시대

: 군사적 관계도 중요했지만 외교관계가 중요한 상황. 한반도 3국과 중원 왕조들과의 활발한 외교관계

: 독립족의 발흥

양의 시대 II. 589-907

: 수당의 시대와 삼국통일

: 당나라와 삼국 간의 군사, 외교 관계 설명

: 최초로 당, 중원왕조가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하는데 성공.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립구도

: 이후 중원왕조는 계속 한반도와 만주 분리정책을 사용. 통일신라와 당과의 조공관계 성립

음의 시대 II. 907-1368

: 당 멸망 이후 5대 10국 시대. 송나라. 만주 지역에 거란의 등장. 요나라. 최초로 만주가 하나의 세력에 의해 다스려진 시대

: 여진과 금나라(1125)에 의해 남송 시대 개막. 이후 몽골에 의해 모든 만주, 한반도가 지배하에 들어감. 중국 최초로 모든 지역이 이민족에 의해 다스려진 시대.

: 요, 금은 고려를 독립세력으로 유지. 송과는 다른 정책. 조공관계 수립, 송과

의 격리에 만족하는 정책. 군사력을 총동원하였다면 고려 지배도 가능했던 상황.

: 요, 금은 중국 모델에 따라 통치. 기본적으로는 통치모델 계승.

: 몽골도 진, 송의 모델에 따라 통치했지만, 요, 금보다는 몽골적 특성을 유지. 고려에 대해서는 고려의 독립을 유지하는 정책. 통혼 정책 정도.

양의 시대 III. 1368-1644

: 조명 관계의 성립. 고려는 원의 약화 이후, 명과의 관계수립에 어려움.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의 중요성. 기존의 고려 영토 고수 + 명과의 화친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한반도 왕조는 만주 지역이 불안정할 때 마다, 중원과 어려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법칙. 또한 한반도 왕조의 내부 정치도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임.

: 명의 남쪽 해안에 대한 일본의 상시적 침략. 임진왜란을 조선반도에 한정된 전쟁으로 보지 않고, 상시적인 명-일본 갈등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

음의 시대 III. 1644-1911

: 후금과 청의 발흥을 설명. 특히 광해군의 현실주의 외교와 인조반정을 상세히 설명.

: 청의 등장 이후 내륙 아시아에서는 강한 세력등장이 원천 봉쇄됨. 이후 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시대

: 다른 중요 경향은 서구로부터의 해양세력의 진출. 중원왕조의 종식을 청 때 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양세력에 의한 전통시대의 종말로 볼 수도 있음.

양의 시대의 특징

: 중국 왕조가 강력하고 팽창적. 군사적으로 북방에 대해 침략적, 팽창적

: 더불어 조공체제도 완비되고 강력해짐.

: 한반도에 대해 강력한 팽창정책.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짐. 진한은 군사침략 이후 한사군, 수당 시기에는 군사 침략 이후 곧 후퇴, 청나라 때는 본격적 군사침략도 하지 않음.

: 20세기 중국을 양의 시대 IV로 볼 수 있는가?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은 여전히 취약.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은 확실히 양의 시대. 소련에 대해 대항,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 북한에 대한 강력한 힘을 발휘. 한국은 여전히 음의 시대 III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

음의 시대의 특징

- : 중국 왕조가 약하고 이민족의 침략, 중국의 분열, 재조직되는 시기
- : 음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민족의 중국화가 가속화됨. 특히 청왕조에 이르면 한족 문화의 파급력이 강력해짐. 유일한 예외는 몽골, 원나라.
- : 음의 시대에는 외교의 중요성이 강화됨. 이민족 왕조는 주변왕조의 조공을 요구하는데, 이때 주변왕조는 심복하기 보다는 중원을 경계하는 경향.
- : 중국은 음의 시대에만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반면, 한반도 왕조는 양, 음의 시대 모두 침략을 받음. 양의 시대에는 중국, 음의 시대에는 만주의 침략을 받은 운명.

한반도 왕조의 시대분류의 특징

- : 중원에서 양의 시대가 열리면 곧 이어 주변도 양의 시대의 영향을 받는데 한반도 왕조는 지체의 기간이 길어짐. 중원의 양 이후 한참 후에 한반도가 양의 시대에 진입.
- : 중원에서 음의 시대가 벌어지기 전에 주변에서 음의 시대가 먼저 시작되는데, 한반도의 경우 그 선행연도가 상대적으로 짧음. 만주가 더 먼저 음의 시대를 시작.
- : 일반적으로 음의 시대에 한반도 왕조들이 더 활발하고 창조적이 된 경향.

음의 시대 II의 특징

- : 송나라가 음의 시대 왕조였지만, 나름대로 중국 문명 발전에 이바지 함. 이민족 왕조와의 대결 속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킨 왕조.
- : 이 시기 다른 특징은 만주 지역에 요, 금, 원 세 왕조가 연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 : 통일 신라, 발해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실패.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 왕조가 완전히 제외되는 시점이 시작됨.
- : 고려와 송은 많은 유사점. 이전의 양의 시대 즉, 고구려와 당의 특성을 계승.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지만 문화적으로는 신라를 계승한 부분도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송과 규칙적이고 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특징.
- : 반면 몽골의 치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징. 음과 양의 시대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원의 문화가 명에 계승된 부분이 많은 것은 좀 다른 부분.